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산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유럽지역 기업의 주식 관련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주식재간접형 증권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신탁재산의 40% 이하, 국내 국공채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증권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주식모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 Pan European Fund (이하 "피투자 펀드")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3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932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18억 원

펀드유형 혼합채권형, 모자형, 종류형
- 채권모투자신탁 편입비: 60% 이상
- 주식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16년 04월 25일)

- 클래스 C-E : 2016년 04월 28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16년 06월 21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8년 04월 03일

벤치마크 MSCI Europe Index 35%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0% + Call 5%

신탁업자 국민은행

월 중 환헤지 비중 89.8%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7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8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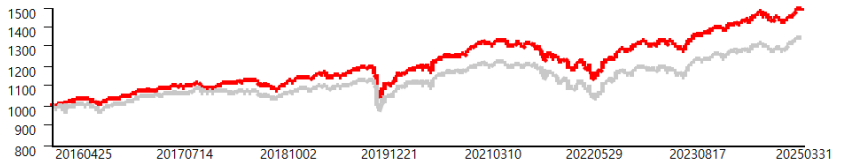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0.26%	3.67%	0.16%	5.44%	13.12%	16.77%	36.19%	47.73%
클래스 C-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클래스 C-P(퇴직연금)	0.18%	3.41%	-0.35%	4.37%	10.82%	13.22%	29.39%	34.66%
클래스 C-P(퇴직연금)E	0.20%	3.49%	-0.18%	4.72%	11.57%	14.37%	31.58%	27.39%
벤치마크	0.47%	5.06%	1.46%	6.01%	13.18%	13.99%	30.30%	33.86%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출처: AITAS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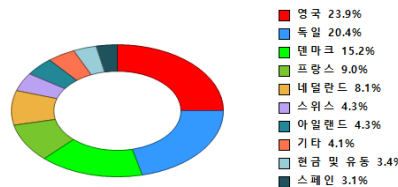
- 운용펀드기준가 - BM기준가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3월말 기준)

<전체>



<국가별> - 피투자펀드 기준



<주식 업종별> - 피투자펀드 기준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3월말, 피투자펀드 주식비중)

종목명	비중(%)
SAP SE	5.0
AIB GROUP PLC	4.5
SCHNEIDER ELECTRIC SE	4.4
SCOUT24 SE	4.2
RELX PLC	4.1
ING GROEP NV	4.1
CTS EVENTIM AG & CO KGAA	4.0
NOVO NORDISK A/S	3.7
UNILEVER PLC	3.7
AMADEUS IT GROUP SA	3.2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E : 총 연 0.792% (판매 0.45%)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032% (판매 0.69%)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0.692% (판매 0.35%)
- (공통사항)

운용 0.282%, 신탁 0.0475%,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0.7% 이내
- 클래스A-E: 납입금액의 0.35% 이내
- 클래스C/C-E/C-P2(연금저축):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3월 유럽 증시는 하락하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가 증시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와 유럽의 주식 시장도 하락하였으며, 특히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유럽 자동차주가 급락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신중한 정책 기조와 정치적 불확실성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반면, 유럽 국방비 지출 확대와 재정 부양 정책이 투자 심리를 개선하였고, 유럽 방위산업주가 급등하였습니다. 독일의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 발표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둔화 또한 유럽 증시 하락을 방어하였습니다.

ECB는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2.75% → 2.50%)하고, 성명서를 통해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가 유의미하게 완화되었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며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5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2.1% → 2.3%)하였으나, 디플레이션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25년 1.1%→0.9%, '26년 1.4% → 1.2%) 하였습니다. 물가 경로에 대한 자신감 보이는 가운데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점과, 높은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ECB 중립금리 추정치 중앙값인 2.00%까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4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예상됩니다. 미국은 3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표명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유럽연합의 재무장 계획에 대한 남유럽 국가들의 반대가 유럽 증시 하락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며, 관세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럽 국방비 지출 확대와 재정 부양 정책,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둔화,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가 유럽 증시 하락을 방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로 지역의 경제 성장과 물가 둔화가 침체 우려를 완화하고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입니다. 중국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의료 소비재 및 명품 관련 업종의 실적 개선이 전망됩니다. 펀드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에 탄탄한 펀더멘털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에 장기간 투자하고자 하며, 심층적인 리서치에 기반한 상향식 투자접근법을 사용하여 종목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빠른 실적, 판매 증가가 아닌, 희소가치를 보유하고거나 시장 내 경쟁기업들 대비 더 높은 경쟁력과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 성장에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연준은 3월 FOMC에서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전망치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심리부진과 실물경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 수준은 높게 유지되며 당분간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최근 데이터에서 소매판매 둔화와 제조업 지수 약세 둔화가 확인되고 있어, 고용지표 둔화가 확인되면 금리 하락 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는 추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불확실한 상황인 가운데 국내 지표 둔화세가 확인되고 있고 4월초 본격적으로 시행될 미 관세정책 영향으로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한국은행의 추가 인하 기대가 지속될 점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달러-원 환율 상승 흐름은 금리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결정 이후 추경 시나리오, 금융 시장 여건에 따라 금통위 전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3년 2.45~2.70% 전망, 국고10년 2.65~2.90% 전망하며, 듀레이션 확대 대응 유지할 계획입니다. 크레딧 시장은 5월 금리 인하 기대감 속 크레딧물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트럼프 2기 관세 불확실성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스프레드 레벨 부담 속 1분기 실적 경계감으로 소폭 약세가 예상됩니다. 부동산PF 3차 사업성 평가 양호한 수준이고 레포펀드의 견조한 매수세 등을 감안할 때 4월에도 여전히 수급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월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미국발 통상 압력은 회사채 시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약세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현 수준 이상의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여전히 비중을 허용범위인 중립 수준(30%)으로 확대하고 일드 메릿과 펀더멘털이 양호한 A급 여전채/회사채 운용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적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